

폐윤활유, 생산자 재활용 VA 체결

환경부, 원유 15만톤 · 200억원 수입대체효과 ... 국제적 흐름 대처

환경부(장관 김명자)는 2002년 2월 LG-Caltex, SK, S-OIL 등 24개 윤활유 메이커와 폐윤활유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2002년 폐윤활유 재활용량은 협약체결 이전인 2000년 재활용량 13만4000kℓ보다 1만6000kℓ (12%) 증가한 15만kℓ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3년 재활용량은 2000년보다 2만2000kℓ 증가한 15만6000kℓ로 재활용률이 추정치 발생량 20만kℓ의 78%에 달하고, 2004년 재활용량은 2000년보다 2만6000kℓ 증가된 16만kℓ로 재활용률이 추정치 발생량 20만kℓ의 80%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폐윤활유 재활용 목표

구 분		2000	2002	2003	2004
발생량	1000kℓ	200	200	200	200
	1000M/T	180	180	180	180
재활용목표	1000kℓ	134	150	156	160
	1000M/T	121	131	140	144
재활용률	%	67	75	78	80

† 발생량은 판매량의 70%, 2000년은 1999-2000 평균,

2002-2004년 발생량은 윤활유 품질향상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예측

†† 중량은 비중 0.9를 적용한 것이며 재활용률은 부피기준 비율

폐윤활유 재활용 자발적협약으로 윤활유업계는 18억5000만원의 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에는 생산 예상량 20만kℓ에 대한 예치금 50억원이 면제되고, 15만kℓ 재활용 비용은 31억5000만원이 소요돼 18억50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된다. 또 재활용 제고율이 2002년 12%, 2003년 16%, 2004년 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02년 폐윤활유 재활용 목표인 15만kℓ를 열원으로 이용하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15만kℓ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 연간 234억원의 외화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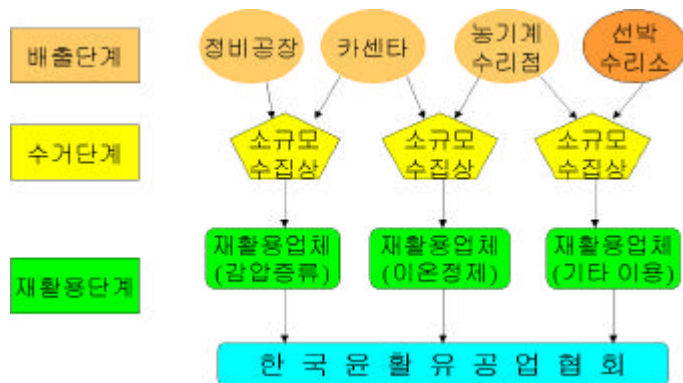
폐윤활유 발생량 및 처리량 (단위 : 1000kℓ,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발생량	188	237	167	174	235
처리량	133	190	153	135	133
회수율	70	80	91	78	57

† 1996-1998년은 선박의 유창청소유가 포함된 양이어서 선박의 유창청소유를 제외한 양인 1999 2000년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윤활유 생산자 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은 생산자 재활용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고 2003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 체결돼 그 의미가 크다.

폐윤활유 회수·재활용체계



윤활유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은 2000년 체결한 전자제품, 형광등과 2001년에 체결한 유리병, 금속캔, 타이어에 이어 6번째이다. 앞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전자제품 등 5개 품목과 함께 폐윤활유도 2003년 시행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시행을 앞두고 재활용 목표량을 미리 설정한 셈이다.

윤활유는 자동차에 95%이상 쓰이며 외항 선박용을 제외한 국내 선박용에 사용된다.

윤활유 재활용은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타, 선박 수리소에서 회수 한 후 감압증류, 이온정제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나 윤활유 사용수명 연장 등 품질향상으로 인해 최근의 수요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한편, 협약식에는 허동수 LG-Caltex 정유 대표이사, 황두열 SK 대표이사, 유호기 S-Oil 대표이사, 박훈식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3/ 06>